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어린이주일:** 다음 주일 14시 연합예배, 유아세례식
유아세례 준비 모임-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다음 주일 13시 사랑방
- **제직회:** 다음 주일 16시 믿음방
- **어버이주일 및 교회창립 43주년 기념예배:** 5월 10일 주일, 연합예배
설교: Jonas Marquardt 목사(디아코니 대표)
- **바이블12 3기 수료식:** 5월 10일 주일
- **연합여름성경학교 1차 준비모임:** 5월 16일(토) 11시 에센 한인교회당
- **루터종교개혁지 순례팀 세번째 준비모임:** 오늘 2부 예배 후 소망방
(교재 '루터를 말한다 루터가 말한다' 지참)
- **라합1나라 모임:** 4월 28일(화) 10시 권미정 님 가정
- **라합2나라 모임:** 4월 29일(수) 10시 30분 호텔KO
- **라합3나라 모임:** 4월 30일(목) 9시 장혜진 님 가정
- **생일축하:** 김종권, 박유라
- **담임목사:** 유럽코스타 평가회 참석(4월 27-28일, 프랑크푸르트)

◆말씀일기 일정

일/창31:1-16 월/창31:17-35 화/창31:36-55 수/창32:1-21
 목/창32:22-32 금/창33:1-20 토/창34:1-17 일/창34:18-3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78독 (김미정 1독)

◆ 예배위원 안내 ◆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예배기도	석호선	어린이/교사	공동기도	조준호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백윤정 서영지		한정우 최수정	
애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다함께	밥상 다섯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일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80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484장	다	함	께
기도/Gebet		석호선	집사	
찬양/Chor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창세기 31:1-16	인	도	자
설교/Predigt	돌아가라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490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창세기 30:1-24 '여인들의 거래' ◀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14) 왔다. 이 ‘합환채’는 당시 불임 여성들에게 임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비한 약초였다. 이것을 매개로, 불임의 한을 안고 살아가는 동생 라헬과 오랜 동안 남편과 잠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외로운 언니 레아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결국, 레아는 이 후로 ‘잇사갈’과 ‘스블론’ 두 아들과 딸 ‘디나’를 마저 얻게 되었다. 합환채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22)셔서, 그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23).

여자든 남자든 인간의 삶, 좀 거창하게 말해 인류의 역사는 이 같이 ‘사랑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한숨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토록 힘겹게 얻어낸 사랑을 언젠가는 다시 떠나 보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하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사랑을 거래하는 중에, 전적인 은혜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생의 과정들이 헛되지만은 않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라 눈물 흘리는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29:31)고, 뿐만 아니라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22)다. 문제는 그 사랑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야곱이 라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중에 진리를 말했듯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다(2). 인간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을 뿐이다. 오늘 나도 사랑에 목마르다. 모든 인간적 거래를 내려놓고, 오직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싶다. 주님, 내 마음을 여시고 생명의 바람을 다시 불어넣어 주소서!

▶ 지난 주 봉헌 내역(4월 19일-4월 25일) ◀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권순아	양순이, 윤영숙	양귀남(부활), 무명1	정기승, 손교훈, 한상철
총액 436,20유로 = 예배당 336.20 + 온라인 100			